

타이어, 내수·수출 30% 급증 “대박”

타이어협회, 2010년 국내외 판매 27% 늘어 ... 세계 자동차 수요회복 영향

2010년 세계적인 자동차 수요 회복으로 국내 타이어 생산기업들이 대박을 터뜨렸다.

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10년 생산은 물론 내수와 수출 모두 30%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대한타이어공업협회에 따르면, 2010년 국내 타이어 생산량은 9533만2000개로 전년대비 26.3% 늘어났다. 내수 판매는 신차용이 985만개 판매돼 10.5%, 교체용은 1675만3000개로 22.5% 늘었다.

2010년부터 통계 기준상 해외 생산분이 제외된 수출은 6878만5000개로 2009년보다 2.0% 늘었는데, 해외생산을 포함하면 30%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.

또 해외공장에서 생산돼 국내에서 판매된 물량을 제외한 국내외 전체 판매량이 27%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.

한국타이어는 매출 3조3544억원으로 19.3% 증가했으며, 영업이익은 5.5%, 순이익은 21.1% 각각 늘었다.

위크아웃 중인 금호타이어도 매출이 2조720억원으로 42.6%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다.

넥센타이어는 11.8% 늘어난 1조803억원의 매출을 올려 처음으로 연매출이 1조원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실적을 올렸다.

시장 관계자는 “2010년 환율하락과 천연고무 가격 급등 등 악재에도 내수시장이 커지고 해외서도 브랜드 가치 상승과 초고성능 타이어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됐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02/14>